2024년 9월 28일 (토) 15시 전국동시

퇴진 광장을 열자! 9.28 시국대회!

2024년 9월 28일 시국대회 | 교육지

2024년 9월 9일 | 민주노총 교육선전실 | www.nodong.org | 02-2670-9100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퇴진 광장을 열자!
노동자가 윤석열을 끝내면 다른 세상이 열린다

민주노총은 하반기 윤석열 정권 퇴진을 전면에 걸고 퇴진 광장을 열기 위한 투쟁을 시작했다. 9·28 시국대회를 기점으로 완강한 거리 투쟁과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성사, 11월 1차 총궐기, 12월 2차 총궐기를 이어가며 윤석열 퇴진 광장을 여는 마중물이 되고자 한다.

윤석열 집권 2년 결산의 교훈은 '3년을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며 퇴진을 넘어 사회대전환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다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은 노동자의 요구에 오로지 노조 탄압, 거부권 남발로 일관하는 최악의 거부권 정권이다.

노동자와 전쟁 선포, 노동운동 말살 정책 일관해 온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권은 노조법 2, 3조까지 21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며, 역대 최대의 거부권 정권으로 기록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무시하고, 정권 출범 2년 동안 노동운동을 반정부세력으로 규정하며, 탄압의 수준을 넘어 민주노총 죽이기 시도를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화물연대 파업을 폭압적으로 짓밟고,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매도하며 양회동 열사가 분신하게 만들고도 "불법파업에는 손배폭탄이 특효약"이라는 극우 반노동 김문수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검찰 독재와 민주주의 파괴, 극우 세력의 국가 장악.

윤석열 정권 집권 1년 만에 우리는 검찰 독재를 절감하고 있다. 전현직 검사 133명이 정부 요직을 독차지하며 경찰, 행안부, 법무부, 국정원, 금감원, 국가인권위, 방통위까지 장악하며 MBC 장악시도 등 폭넓은 영역에서 민주주의 훼손을 자행되고 있다.

또한 총선 참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민정수석실의 부활과 함께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김문수 노동부 장관 등 자신처럼 막말을 일삼았던 극우적 친일 인사들을 임명하며 언론장악과 노동 탄압, 역사 왜곡을 강행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와 역사 부정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공영방송 KBS에서 일본 천황을 찬양하는 노래가 울려 퍼지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취임 후 광복절 경축식이 최초로 취소되기도 했다.

윤석열 정권의 친일 역사 쿠데타를 멈춰 세우지 않으면 국가 기반이 통째로 흔들릴 지경이 되어 버렸다.

경제 파탄과 노동자·민중의 생존권 위기가 심화

3년간 부자 감세 81조, 2024년 상반기에만 법인세 16조 감소. 윤석열의 부자 감세로 민중 복지 예산은 축소되고 있다.

청년 일자리, 공공주택, 공공의료 같은 민생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고 물가 폭등에 전기세, 가스비, 난방비, 대중교통비까지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삶은 더욱 비참해지고 있다. 대통령 한명 잘못 뽑아 우리 국민들의 희생과 고통은 끝도 없고 '부자 천국, 서민 지옥'을 온 몸으로 견뎌내고 있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 정책 추종하며 한반도·동북아 전쟁 위기 고조

미국은 경제적 쇠퇴와 내부의 정치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중동에서 전쟁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국가로 중국을 지목하며 경제봉쇄를 넘어 군사적 대결전략을 강화하고 아시아에서 집단적 동맹체제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미국의 패권전략에 따라 한미일 3각군사동맹이 강화되고 이 과정에서 윤석열정권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오염수 방류 지지, 독도 조형물 철거, 강제동원 제3자 변제, 사도광산 유네스코등재 일본입장 동의,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국방백서에 규정, 미국의 국방부 지도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도 침묵,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식민지 근대화론, 9.19 군사합의 파기, 대북전단살포와 접경지역 상시적 군사활동으로 남북의 군사적 대결, 한반도 전쟁위기 고취!

설마 일찌감치 찾아온 레임덕,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는 방도로 전쟁을 택하려는 미친 행보를 보이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윤석열 자체가 국가비상사태임을 입증한 묻지마 자화자찬 국정 브리핑.

지지율 20%대 대통령의 자화자찬 국정 브리핑은 귀 막고 입만 연 불통의 끝판왕을 보여주었다.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국민의 이자 부

담이 크게 줄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며 국민들이 주택 걱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자화자찬은 듣고 있는 국민들의 귀를 의심해야 할 지경이었다. 무엇보다 응급 의료상황에 대해 "일단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는 발언에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구급차 뺑뺑이를 돌다 병원을 찾지 못하고 사망하거나 제때 치료를 못하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뉴스가 매일 지면을 도배하고 있다. 이미 한국 의료는 붕괴하고 있고. 이제 국민들은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다는 두려움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응급실 응급 상황인데, 정부는 계속 헛발질

사회

'열·경련' 2세 여아, 응급실 11곳 뺑뺑이…결국 의식불명 빠졌다

"응급환자 죽어가도 '위기 아니란' 尹…정책실패 인정하라"

국민이 살자면, 퇴진 말고 다른 길 없다.

민주노총과 민중 진영,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분노한 국민들은 이 불의한 정권을 끌어내리지 않고서, 다른 내일을 꿈꿀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

이렇듯 정권 유지가 불가능한 수준의 지지율과 무능과 부패의 끝판왕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아직 퇴진 투쟁에 불이 붙지 않고 있다.

무능과 독선으로 얼룩진 윤석열의 거침없는 폭정과 폭주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건 민주노총이 앞장 선 윤석열 퇴진 투쟁 뿐이다.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완강한 투쟁은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킨 촛불혁명의 마중물이 되었다. 지난 촛불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번에는 퇴진을 넘어 사회대전환이라는 시대적 사명도 함께 완수해야 할 책무 앞에 놓여있다.

망국의 길로 들어선 윤정권의 퇴행에 국민의 인내심도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고 퇴진 투쟁의 발화점이 목전에 와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퇴진 광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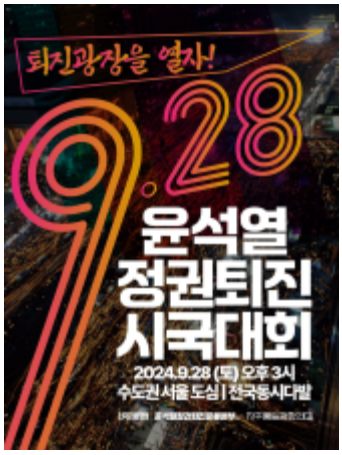
퇴진 광장을 열자!

퇴진 광장의 포문을 여는 첫 투쟁!

▲ *9월 28일 민중대회*

▲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 *완강한 거리 투쟁을 이어가며*

▲ *11월 1차 총궐기, 12월 2차 총궐기 성사!*

윤석열 정권 끌어내리는 역사적인 대전환을 만들어 냅시다!